

지역 매 아리

김제시보건소, 지평선축제

음식부스 대상 위생교육 실시

김제시 보건소(소장 김형희)는 지난 23일 농업기술센터 상록관 대강당에서 제21회 지평선축제 음면동 음식부스 운영단체 대표 및 총무 등 임원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김제지평선축제는 김제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김제의 주된 농산물을 이용하여 김제만의 특색있는 먹거리 특화메뉴를 선정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평선 축제장 내 식품영업자의 한시적 영업신고 신청, 식품안전관리 중점요령, 개인위생관리, 식재료 위생관리, 친절 응대, 가격표 게시 및 바가지요금 근절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축제기간 동안 한시적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각 음식부스마다 개별 영업신고 해야 하며 사전에 보건증 발급 및 위생교육 수료를 완료한 후 축제 이전까지 영업신고를 완료할 것을 당부하고,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조리종사자의 위생관리능력 배양과 식중독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금구면 복지기동대

가스안전 차단기 설치 봉사

김제시 금구면(면장 서재영) 복지기동대(대장 권혁운)는 지난 24일 음식 조리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가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혼자 사는 거동불편 노인세대를 중심으로 가스안전 차단기를 설치하는 봉사활동을 추진했다.

이번 가스안전차단기는 일정시간이 지나면 가스중간밸브를 자동으로 닫아주는 타이머식 타이머가 결합 실수로 가스를 켜 놓았더라도 가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 타이머 설정시간 전에 가스 중간밸브를 잠그려면 타이머의 손잡이를 돌리면 되기 때문에 안전한 가스 사용을 생활화 할 수 있다. 이에 복지기동대는 사고에 노출되어있는 독거노인 13세대를 방문하여 가스안전차단기 설치를 완료하였다. 권혁운 금구면 복지기동대장은 "가스안전사고의 대부분이 가스 사용자 부주의로 발생한다"면서 "앞으로 기억력, 인지력이 저하되는 독거노인·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가스취약세대의 안전사고를 줄여나가기 위해 가스안전제품 설치와 안전점검 등에 더욱 힘 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재영 금구면장은 "복지기동대는 관내 저소득세대의 생활불편에 따른 사후 조치 뿐 아니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지역 복지 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장, 지역 일자리사업 적극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간담회 참석

마을환경지킴이제 국비지원 필요성 등 개선방안 건의

박준배 김제시장이 지난 23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과 전라북도 지자체 및 공공기관장 오찬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준배 시장은 일자리·경제분야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년인턴지원제도를 포함한 김제시 청년지원정책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기준 완화와 초고령사회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촌 환경

문제 대응사업인 마을환경지킴이제 국비지원 필요성 등 지역일자리사업의 개선방안과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특히 전국 최초 시행 중인 사업으로 저출산 및 인구유출로 경제활동인구가 지속적인 감소세인 반면 고령인구의 꾸준한 증가로 고령화율이 30%를 넘는 김제시의 노인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농촌지역 영농폐비닐 등 환경문제에 효과적으

로 대응하는 마을환경 지킴이제의 사업효과를 설명하며, 우수 일자리 사업육성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전국 288개 시·군·구 중 89개가 지방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지역의 현안문제를 이야기하며, 주요인인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정착 유도를 위한 청년지원사업정책 추진의 필수요건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지원기간·대상 등에 대해 각 지자체의 여건을 반영한 제한적 자율성 부여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정책이 펼쳐질 수 있는 대안을 역설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청년키움식당, 셰프에게 외식창업 배우다

완주군, 박민혁 셰프 초청

전문적 조리기술 전수받아

완주 청년키움식당 참가자들이 셰프에게 외식창업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완주군은 최근 청년키움식당 참가팀들과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쿠킹클래스를 진행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특별 초대 강사로 박민혁 셰프를 초청했다.

박 셰프는 W호텔, 두바이 버즈 알아랍, 엘리멘츠, 랩24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사운즈한남 총괄셰프로 활동하고 있다.

쿠킹클래스에서는 완주의 농산물인 고산미소향우와 감시초, 무장아찌 등을 활용한 비프 타르타르와 '치미쥬리 소스를 곁들인 등심 스테이크와 송로버섯 폼 푸레' 메뉴들을 완주 메뉴로 재해석하는 조리법을 선보였다.

참가자들은 박민혁 셰프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 조리기술을 전수받으며 조리과정, 식재료의 응용, 지역 식재료에 대한 특징 등을 주제로 참가팀



완주군은 최근 청년키움식당 하반기 쿠킹클래스에 특별 초대강사로 박민혁 셰프를 초청했다.

들과 셰프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민혁 셰프는 "음식만 잘 만든다"는 요리사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고 강조하며 "패션, 인테리어 등의 다양한 시각을 감각적으로 키우고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먹는 이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셰프라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정재운 외식창업인큐베이팅추진단장은 "외식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지역의 식재료의 우수성과 변화하는

외식산업에 대응하는 법을 선배 셰프에게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창업 아이템을 업그레이드해 모색할 수 있는 교육의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외식창업인큐베이팅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18년에 선정 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14팀(55명)의 참가팀이 활동했다. 이를 통해 현재 협동조합 창업1팀, 개인창업 4팀, 취업 7명의 성과를 나타냈다. /완주=이중복 기자

완주군립 고산도서관 '책 읽어주는 토요일' 운영

2011년부터 다문화 서비스 사업을 시행해 온 완주군립 고산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2019년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책 읽어주는 토요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 23일 완주군 고산도서관에 따르면 책 읽어주는 토요일은 이주 외

국인과 내국인의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기획된 이번 프로그램이다.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어린이 20명을 대상으로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완주군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지원으로 참가비와 재료비 전액이 무료다. 오는 3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며,

프로그램은 31일부터 11월 16일까지 총 11회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고산도서관 2층 유아자료실에서 주제도서와 함께 다양한 독후활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서진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은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다문화 거점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3일 상록관에서 농기계 생산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제농기센터, 농기계 생산업체와 간담회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는 지난 23일 상록관에서 '2019 김제 농업기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 농기계 생산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015, 2017년 박람회에 참가했던 업체를 포함, 김제시 농기재 생산업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생산업체 관계자들은 농업기계박람회 개요와 추후일정을 안내받고 오는 11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열리는 '2019 김제 농업기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에 제시된 의견들은 27일 개최되는 박람회 추진협의회 회의에 전달돼 의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실제 박람회 추진에 반영될 예정이

다

또한 김제시는 지난 박람회보다 기간이 1일 늘어남에 따라 전시면적을 33%이상 확대해 150여개 부스 추가 확보, 4차 산업혁명 대비 스마트팜 농기재 등 첨단 농기계 중점 전시, 매회 증가하는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 추가 확보와 서버버스 운행 등 박람회 규모 확대에 따라 달라진 점들을 안내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간담회는 실제 박람회에 참가하는 지역 농기계 생산업체 관계자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귀한 소통의 자리였다"며 "내주신 의견들이 반영되어 올해도 성공적인 김제 농업기계박람회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이웃이 축하하는 행복한 백일잔치

완주군 여성단체연합, 백일상 지원 첫 주인공 탄생

완주군 여성단체협의회회의 백일상 지원 첫 주인공이 탄생했다.

지난 23일 완주군여성단체협의회회는 가족문화교육원에서 완주 봉동읍 김모씨의 아기 100일을 축하했다.

앞서 여성단체협의회는 이달 초 '완주 으뜸이 도담도담 백일상' 지원을 위해 관내 기업체들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지원사업의 첫 주인공이 탄생한 것.

완주군여성단체협의회회를 비롯해 (유)현춘식품(대표 백용복), 완주 마더쿠기(대표 강정래), 완주떡메마을(대표 양정숙), 우리꽃누들(대표 신재승), 완주지역지원센터(센터장 김진왕)가 떡 케이크, 미역, 견과류, 마더쿠기 빵, 축하엽

서, 아이의 내의 등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백일잔치에는 아이의 조부모를 비롯한 온 가족이 총 출동해 아기의 100일을 축하했다.

김씨는 "백일상을 직접 구입하려고 보니 가격이 높아 망설였는데 좋은 기회를 통해 지원을 받게 됐다"며 "물품 하나하나 아이를 생각하고 정성껏 준비해 준 마음이 느껴져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이어 "보내주신 소중한 마음을 깊이 간직하고, 아이에게도 주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줬다는 것을 잘 가르치겠다"며 인사를 드렸다.

/완주=이중복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